

TV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05:40 관촬카메라 24시간(재) 50 신대동여지도	00 KBS 뉴스광장	00 여기는 브라질 G조예선 (가나 vs 미국)	00 브라질 월드컵 특집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브라질 2014 특집 모닝와이드 1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2014 브라질 월드컵 하이라이트 올라 브라질 1부	20 브라질 2014 G조 (가나 vs 미국)
8 00 새 시도시에게 듣는다 15 토크쇼A	25 아침마당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소설 <순금의 땅> 40 2014 브라질 월드컵 특집 월드컵 하이라이트	30 MBC 뉴스 45 영상기행 아름다운 지구	00 보도특집 민선 6기 당선인에게 듣는다
10 팩트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 자전거 55 튜튼생활채주	30 여유만만	45 세계최고를 찾아서 스페셜 55 끝! 끝! 끝!	30 브라질 2014 하이라이트
11 20 정치이야기 是非非非	00 KBS특선다큐 다큐멘터리 시 55 바른말 고운말	40 2014 브라질 월드컵 특집 월드컵 아레나	00 2014 메이저리그 류현진 선발경기 (LA : 콜로라도)	
12 20 뉴스 특보	00 KBS 뉴스 12	50 제84회 전국 총향 선별대회 1~2부		00 브라질 2014 특집 SBS 12 뉴스 30 브라질 2014 하이라이트
1 30 뉴스 특급	00 리얼 체험 세상을 품다(재) 40 좋은나라 운동본부2 준인사격시대		15 일일연속극 <빛나는 로맨스>(재)	20 브라질 2014 특집 SBS 뉴스 30 네트워크현장 고향이 보인다
2 40 직인직설	00 2014 창업프로젝트 천지창조			
3 50 정용관의 시사방법	00 뉴스 토크	00 후투스 읽어버린 숲 25 마스크 마스터즈 55 TV 유치원 공다공	00 MBC 경제뉴스 05 수빈 스토리 35 헬로킴즈 공룡이 살아있다!	10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4 50 쾌도남마	00 시사선단 55 튜튼 생활채주	25 애니월드 55 가족의 품격 톨하우스(재)	25 똑? 똑! 키즈스쿨 55 끝! 끝! 끝!	00 꿈의 보석 프리즘스톤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 그래픽		00 브라질월드컵 특집 MBC 이브닝 뉴스	00 브라질 2014 특집 SBS 뉴스투데이 15 KBC 저녁 뉴스 25 일일드라마 <사랑만화래>
6 00 김승권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생생 정보통	20 생방송 빛날	05 닥터 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20 뉴스 특보	00 KBS 뉴스 7 30 러브인 아시아	50 일일드라마 <빠꾸기 동지>	15 일일연속극 <빛나는 로맨스> 55 브라질 월드컵 특집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저널 때때때때 20 일일드라마 <사랑만화래>
8 10 갈대까지 가보자	25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30 2014 브라질 월드컵 특집 월드컵 투나잇 55 2014 브라질 월드컵 기획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엄마의 정원>	00 브라질 2014 특집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45 브라질 2014 특집 월드컵 페스타
9 20 특집 채널A종합뉴스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00 브라질 2014 특집 SNS원정대 일대일 띄워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시사기획 창 50 콘서트 필	00 월화드라마 <빅맨>(최중회)	00 월화특별기획 <트라이앵글>	00 월화드라마 <닥터 이방인>
11 00 모큐드라마 <싸인>	30 KBS 뉴스라인	10 2014 브라질 월드컵 기획 우리동네 예제능	15 MBC 다큐스페셜 브라질 월드컵 특집 제3부 추곡에 미치다	15 심장이 쎄다
12 10 웰컴 투 시월드(재) ①:20 집나간 가족	30 국악한미드(재) ①:20 생활의 발견	30 여기는 쿠바 <별기에 vs 알제리> H조 예선	15 MBC 뉴스 24 30 2014 브라질 월드컵 H조 <별기에 vs 알제리>	30 브라질 2014 H조 <별기에 vs 알제리>



거미 '사랑했으니..됐어' 4년만에 두번째 미니앨범 발표

“그동안 제 이미지가 강렬하고 보이시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번 앨범에는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곡이 많아요. 그래서 앨범 재킷이나 뮤직비디오에도 자연스럽게 여성스러운 모습을 담고 싶었죠.”

보컬리스트 거미(본명 박지연·사진)가 돌아왔다. 4년 만의 컴백이어서일까. 그의 표정과 말투에는 무엇보다 어서 무대에 올라 팬들에게 음악을 선보이고 싶다는 마음이 잔뜩 묻어났다.

최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연장에서 열린 미니 앨범 ‘사랑했으니..됐어’ 쇼케이스에서 거미는 “욕심이나 부담감을 갖기보다는 재밌게 작업하려고 노력했다. 즐겁게 작업해 그만큼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자신했다.

이번 미니 앨범에는 타이틀곡 ‘사랑했으니..됐어’를 비롯해 모두 여섯 곡을 담았다. 2010년 발매된 1집 미니 앨범 ‘러브리스’ (Loveless) 이후 4년 만의 앨범이면서 그의 두 번째 미니 앨범이다. 쇼케이스에서 들려준 ‘사랑했으니..됐어’는 율조리 듯 시작해 점차 거미 특유의 애절한 목소리가 도드라지는 팝 발라드곡이다. 살짝 가미된 레게 장법과 노래의 후반부에서는 특이 연상될 정도로 강렬하게 내뿜는 사우팅이 인상적이다. 이별의 슬픔을 반영적인 표현에 담담한 느낌으로 담아 애절함이 증폭된다. 거미의 오랜 친구 가수 휘성이 작사하고 작곡가 김도훈이 곡을 썼다.

“그동안 제 이미지가 강렬하고 보이시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번 앨범에는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곡이 많아요. 그래서 앨범 재킷이나 뮤직비디오에도 자연스럽게 여성스러운 모습을 담고 싶었죠.”

보컬리스트 거미(본명 박지연·사진)가 돌아왔다. 4년 만의 컴백이어서일까. 그의 표정과 말투에는 무엇보다 어서 무대에 올라 팬들에게 음악을 선보이고 싶다는 마음이 잔뜩 묻어났다.

최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연장에서 열린 미니 앨범 ‘사랑했으니..됐어’ 쇼케이스에서 거미는 “욕심이나 부담감을 갖기보다는 재밌게 작업하려고 노력했다. 즐겁게 작업해 그만큼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자신했다.

이번 미니 앨범에는 타이틀곡 ‘사랑했으니..됐어’를 비롯해 모두 여섯 곡을 담았다. 2010년 발매된 1집 미니 앨범 ‘러브리스’ (Loveless) 이후 4년 만의 앨범이면서 그의 두 번째 미니 앨범이다. 쇼케이스에서 들려준 ‘사랑했으니..됐어’는 율조리 듯 시작해 점차 거미 특유의 애절한 목소리가 도드라지는 팝 발라드곡이다. 살짝 가미된 레게 장법과 노래의 후반부에서는 특이 연상될 정도로 강렬하게 내뿜는 사우팅이 인상적이다. 이별의 슬픔을 반영적인 표현에 담담한 느낌으로 담아 애절함이 증폭된다. 거미의 오랜 친구 가수 휘성이 작사하고 작곡가 김도훈이 곡을 썼다.

“이별의 아픔을 담담하게 표현하려 했어요. 가사가 현실적이면서도 시작이고, 멜로디도 따스하면서도 후반부로 갈수록 강렬하고 쓸쓸함도 느낄 수 있죠. 지금 저의 상황이나 위치에서 해야 하는 음악이 아닌가 싶어요. 익숙함과 새로움을 접목한 중간 정도 성격의 곡인 것 같아요.”

그는 “발라드곡이지만 ‘울고불고’하기 싫었다. 속으로 아픔을 참는 게 더 슬픈 것 같다”고 소신을 밝혔다. 앨범에는 그와 가까운 다른 가수들이 능력을 더했다. 휘성이 타이틀곡의 작

사를 비롯해 여러 곡에서 작사, 작곡 솜씨를 뽐냈고 화요비도 여섯 번째 트랙 ‘누워’의 작사·작곡을 맡았다. 같은 소속사인 그룹 JYJ의 박용천은 첫 트랙 ‘놀러가자’에서 피쳐링으로 목소리를 보탤었다.

“발라드 ‘사랑해주세요’는 처음에는 슬픈 가사였는데 제 곡으로 결혼식 축가를 부르고 싶다는 생각에 결혼식 상황을 생각해 다시 가사를 썼죠. 희망적인 노래인데 부르면서 울컥해요. 제 감성이 좀 그런 것 같아요.(웃음). ‘놀러가자’는 여자가 어디론가 떠나자고 말하는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려 유천 씨에게 부탁했죠. 노래도 잘 해야 하고 내레이션 연기도 필요한데 너무 잘 해주셨어요.”

그는 “친한 친구들이 따로 말을 안 해도 나를 잘 알아서 어울리는 곡을 선물해줬다”며 애정과 믿음을 보였다. 4년 만의 앨범인데 뜻밖에 정규가 아닌 미니 앨범이다. 이유를 묻자 잠시 생각이 잠겼다가 이내 속내를 털어놓는다.

“고민이 많았어요. 요즘 정규 앨범 내기가 가수에게 조금의 미없는 일이 된 것 같아요. 다른 가수 분들도 싱글 앨범으로 많이 활동하시잖아요. 힘들게 만든 제 곡들이 누군가에게 제대로 들려지지 않는 것이 안타깝고 싫었어요.”

4년간 많은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곡을 발표해 히트시키고 일본에서도 활발히 활동했지만 신곡을 들고 본격적으로 국내 팬들과 만나기는 오랜만이다.

거미는 “제 또래 가수들에게 음악방송 출연이 어려운 일이 된 것 같다”면서도 “방송이든 공연이든 가리지 않고 많이 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의 팬들도 때때로 저와 저의 음악을 어려워하세요. 사실 흥얼거릴때만 평창이 쉬운 멜로디와 가사입니다. 또 저는 편안한 사람인데 왜 어려워하시는 걸까요.(웃음) 많은 분이 공감해주시는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장르를 고집하기보다 제 목소리가 어울린다면 어떤 장르든 해보려 합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MBC, 월드컵 중계 시청률 동시간대 1위

‘이작두’ 이영표 족집게 예언도 화제

화려한 중계진을 앞세운 지상파 3사의 2014 브라질 월드컵 중계 전장이 초반부터 뜨겁다.

브라질 월드컵 개막 나흘째를 맞은 16일 현재까지 시청률만을 놓고 보면 초반 승기를 잡은 것은 MBC다.

이날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전 방송된 조별리그 C조 코트디부아르-일본전에서 MBC는 8.5%(전국 기준)로 3사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경기 시간당 대상을 대상으로 한 순수 경기 시청률이다.

이 경기에서 KBS 2TV는 7.9% 시청률을, SBS는 5.4% 시청률을 기록했다. MBC는 이날 3사가 중계한 조별리그 D조 이탈리아-잉글랜드 경기에서도 시청률 6.9%로 1위를 차지했다. SBS와 KBS 2TV 시청률은 각각 6.3%, 5.7%였다.

MBC는 예능에서도 호응을 맞춘 김성주·안정환·송중국 3인방의 친근하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중계가 통했다며 대세 군히기에 들어갔다.

온라인에서는 3사 중계가 각기 화제를 모으면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이영표 KBS 해설위원은 족집게 예측으로 ‘이작두’, ‘초롱도사’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 위원은 조별리그 C조 코트디부아르-일본 경기와 조별리그 D조 잉글랜드-이탈리아 경기 결



왼쪽부터 송중국·김성주·안정환.

과를 모두 정확하게 예측했다. 스페인-네덜란드 경기에서도 “스페인에 몰락할 수 있다”는 그의 예언이 들어맞으면서 누리꾼들을 놀라게 했다. 차두리 SBS 해설위원은 17일 대표적인 빅매치로 꼽히는 조별리그 G조의 독일-포르투갈 경기에서 단독 해설에 나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3사는 오는 18일 오전 우리 국가대표팀의 첫 경기인 러시아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진검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상파 방송사들은 시차 때문에 주요 경기가 새벽에 열리는 까닭에 화제성에 비해 시청률에서는 한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짹짹짹’ 음원 저작권자는 신해철

월드컵 때마다 온 국민의 응원 구호로 울려 퍼지는 ‘대~한민국 짹짹짹’이 담긴 월드컵 송의 저작권자가 신해철<사진>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16일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신해철은 지난 2002년 붉은악마의 요청으로 ‘한일 월드컵 응원가 공식 앨범’에 참여하면서 스포츠 경기장에서 응원 구호로 쓰인 ‘대~한민국 짹짹짹’과 ‘짹짹짹 짹짹 짹짹’을 이용해 만든 ‘인투 디 아레나’(Into the Arena)란 곡을 수록했다.

공식 앨범의 첫번째 트랙에 담긴 ‘인투 디 아레나’는 북, 팽, 탕 등 전통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대~한민국 짹짹짹’과 ‘짹짹짹 짹짹 짹짹’이 반복되며 ‘어~이 어~이 대한민국’이란 가사가 담긴 응원 구호같은 노래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 노래가 월드컵 시즌마다 방송사, 응원전 등에서 널리 쓰이는데 신해철이 작곡한 음원으로 한국음악 저작권협회에 저작권 등록이 돼 있다”며 “하지만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든 곡이 아니어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저작권을 오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월드컵 때마다 온 국민의 응원 구호로 울려 퍼지는 ‘대~한민국 짹짹짹’이 담긴 월드컵 송의 저작권자가 신해철<사진>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16일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신해철은 지난 2002년 붉은악마의 요청으로 ‘한일 월드컵 응원가 공식 앨범’에 참여하면서 스포츠 경기장에서 응원 구호로 쓰인 ‘대~한민국 짹짹짹’과 ‘짹짹짹 짹짹 짹짹’을 이용해 만든 ‘인투 디 아레나’(Into the Arena)란 곡을 수록했다.

공식 앨범의 첫번째 트랙에 담긴 ‘인투 디 아레나’는 북, 팽, 탕 등 전통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대~한민국 짹짹짹’과 ‘짹짹짹 짹짹 짹짹’이 반복되며 ‘어~이 어~이 대한민국’이란 가사가 담긴 응원 구호같은 노래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 노래가 월드컵 시즌마다 방송사, 응원전 등에서 널리 쓰이는데 신해철이 작곡한 음원으로 한국음악 저작권협회에 저작권 등록이 돼 있다”며 “하지만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든 곡이 아니어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저작권을 오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는 20일 오후 8시 마포구 서교동 브이홀에서 앨범 발매 기념 ‘19금 파티’를 열어 팬들이 6집 타이틀곡을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재결성되는 그룹 넥스트의 새 멤버도 이 자리에서 처음 공개한다. /연합뉴스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 <청개구리 길들이기>	14:45 미연마이로봇	19:30 EBS 뉴스
05:40 성공 인생 후반전	10:10 EBS 특강	15:00 초능력 특공대	19:50 극한직업(재)
06:10 명의 3.0(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15 모피와 친구들	20:40 다구 오늘
07:00 놀이터 구조대, 뽀잉(재)	11:20 세계대마기행 <파봉! 브라질>(재)	15:30 제로니모의 모험	20:50 세계대마기행
07:15 오스카의 오아시스(재)	12:00 EBS 정오 뉴스	16:00 당동명 유치원(재)	<시청자와 떠나는 세계대마여행>
07:30 풍선 코끼리 발루뽀(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 2	16:20 오스카의 오아시스	21:30 한국기행 <시청자와 떠나는 여행>
0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3:05 지식채널e	16:30 놀이터 구조대, 뽀잉	21:50 EBS 다크프라이
08:00 당동명 유치원	13:10 즐거운 수학 EBS MATH	16:45 곰피와 친구들(재)	<비밀의 땅 피라미>
08:20 두다다콩(재)	13:20 외과왕국 친구들	17:00 방귀대장 뽀롱이(재)	22:35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응서
08:35 방귀대장 뽀롱이	13:30 우리 기자 마이코	17:15 풍선 코끼리 발루뽀	23:35 세계 권문록 아틀라스
08:50 곰피와 친구들	13:45 치료와 친구들	17:30 뽀롱뽀롱 뽀로로	24:05 지식채널e(재)
0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재)	14:00 헬로 코코롱	17:4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24:10 세계 명작 극장
09:20 부릉!부릉! 부루미즈(재)	14:15 시계마을 티키톱	18:00 생방송 특목! 보나하니	<더비발가의 테스 2부>
09:35 뽀곰	14:30 부릉!부릉! 부루미즈	19:00 세계 권문록 아틀라스(재)	01:20 시네마 천국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0:0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11:40 최태성의 <수학 1>(재)	07:00 2014 공인연계사 시험대비 강좌	15:50 "	<수학 4-1>
00:50 "	12:15 승승장구 <수학 I A형>	07:30 친절한 수학 익힘책이 5-1	16:20 "	<수학 4-1>
01:40 올림포스 <영어독해의 기본 1>	13:05 "	08:00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비강좌	16:50 "	<수학 6-1>
02:30 "	14:00 "	08:30 한자능력검정시험 대비강좌	17:20 만점왕 평가문제집	<수학집중 5-1>
03:20 뉴 탐스런 <생활과 윤리>	14:50 "	09:00 즐거운 수학 EBS MATH	18:00 TV 중학 <수학 1(상)>	<영어 3-1>
04:10 "	15:40 <동아시아사>	09:10 TV 중학 <수학 1(상)>	18:40 "	<수학 3-1>
05:00 "	16:30 <세계사>	09:50 "	19:20 등업시공 <수학 3-1>(재)	
05:50 2013 포스 <수학 I B형>	17:20 <세계지리>	10:30 "	20:00 중학 중간, 기말 시험대비 문제풀이 <사회 1-1>	
06:40 암살탐스런 <문학 I>	18:10 <법과 정치>	11:10 "	20:40 "	<과학 1-1>
07:30 2014 포스 <문학 I>	19:00 <생활과 윤리>	11:50 "	21:20 "	<과학 2-1>
08:20 올림포스 <영어독해 기본 1>	20:00 EBS-N제 <국어 A형>(재)	12:30 등업시공 <수학 1(하)>	22:00 "	<과학 1-1>
09:10 "	21:00 <수학 I>(재)	13:10 "	22:40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수학 2(하)>(재)	
10:00 뉴 탐스런 <사회>(재)	22:00 인터넷 뉴스 <수학 A형>(재)	14:30 "	23:20 중학e포스 영문본 2 <수학 3-1>	
10:50 2013 포스 <수학 I B형>(재)	<합법과 작문>특사와 문법 B형	15:20 만점왕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7일(음 5월 20일 己未)

子	36년생 불완전한 상태이다. 48년생 본원적 가치를 인식하라. 60년생 뜻밖의 일에 관련되는 반거로움이 보인다. 72년생 양념을 잘 쳐야 음식 맛이 나는 이치로다. 84년생 건설한 기반 위에서만 융성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3, 21	午	42년생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을 알자. 54년생 형식적인 허울보다 실질적인 가치가 훨씬 더 낫다. 66년생 지금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뒤돌아 보았을 때는 낫다. 78년생 마지막 상황까지 지켜보고 최종 판단을 하라. 행운의 숫자 : 17, 90
丑	37년생 분수에 맞지 않다면 오히려 폐해를 입게 된다. 49년생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61년생 생각지도 않은 기회가 보인다. 73년생 행운이 따르리라. 85년생 의식을 달리 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05, 63	未	43년생 절도의 찬스이니 신중히 다루어야 할 것이다. 55년생 지금 실행하지 않으면 후회해 막급할 것이다. 67년생 딱도 막도 못 할 처지이니라. 79년생 여태까지 조용히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모습이다. 행운의 숫자 : 50, 73
寅	38년생 처음부터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50년생 지나친 집착은 역효과를 낼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62년생 상황 윤리에 따른 호응이 필요하다. 74년생 인기가 상승하면서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7, 85	申	44년생 목적이식이 분명해야 진행에 자질이 없는 법이다. 56년생 벗어나지 않으면 항상 제자리걸음만 하게 된다. 68년생 함께 한다면 발전적인 행이 생긴다. 80년생 내색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이 더 낫다. 행운의 숫자 : 91, 25
卯	39년생 뜻을 확실히 펼쳐도 좋을 때가 되었다. 51년생 상대적 일 수밖에 없느니라. 63년생 실의를 잘 따져서 값진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5년생 소강상태를 뒤로하고 수습 국면으로 접어든다. 행운의 숫자 : 26, 09	酉	45년생 오늘 일을 미룬다면 대단히 불리해지리라. 57년생 흐름이 유연하여 쉽게 이루어지겠다. 69년생 지구력의 강도가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81년생 결코 간단한 문제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판국이다. 행운의 숫자 : 74, 03
辰	40년생 바라만 보아도 충분한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52년생 구관이 명관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할 것이다. 64년생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반복해서 나타내리라. 76년생 주관을 오류를 낳기 쉽다. 행운의 숫자 : 55, 16	戌	46년생 오히려 부자유이 생길 수도 있다. 58년생 잊고 있었던 것을 연상시켜주는 이가 보인다. 70년생 체면치레는 소모적인 국면으로 이끌 것이다. 82년생 기초가 튼튼해야 훌륭한 구조물이 들어설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6, 32
巳	41년생 길성의 물이 가득 괴어 있는 모습이다. 53년생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에게서 찾게 될 것이니라. 65년생 정면대의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이다. 77년생 인연을 소중히 여기다 보면 길사가 중중하리라. 행운의 숫자 : 89, 86	亥	47년생 힘들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형태다. 59년생 틀림없는 것이니 노파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71년생 총동명의 폐해는 의외로 클 수 있느니라. 83년생 임시변통이라면 문제가 속출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0, 92